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첫날 1만8천대 돌파

역대 현대차 중 최고...국내 최초 온라인 직접판매
안정성·공간성·편의사양 극대화...고품격 디자인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신규 엔트리 SUV ‘캐스퍼(CASPER)’가 1만8,940대의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인기 차종의 탄생을 알렸다.

현대차는 지난 14일부터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casper.hyundai.com)’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만 캐스퍼의 얼리버드 예약을 진행했다.

이번 1만8,940대의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 대수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사전계약 최다 기록으로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의 1만7,294대 보다 1,646대가 더 많다.

캐스퍼는 개성을 살린 실내·외 디자인과 컬러, 차량의 안전성 확보, 공간 활용성 극대화, 운전자 중심 편의사양 탑재 등 기존 엔트리 차급 고객들의 주요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캐스퍼는 경형 최초로 전 트립에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량/보행자/자전거 탑승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차량 출발 알림 등을 기본 적용해 동급 최대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Full-folding) 시트를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확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캐스퍼 사전계약에 맞춰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불리는 삼성역 코엑스 ‘K-POP 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캐스퍼의 다양한 모습을 3D 광고로 상영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차급 캐스퍼가 얼리버드 예약 첫날부터 고객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에 더해 디자인, 안전성, 공간성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상품성 때문”이라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진행된 D2C(고객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15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가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LH 광주전남본부, 기존주택 매도 접수

내달까지...1천호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재로)가 오는 10월까지 매입입대사업을 위한 기존주택매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매입입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수리하여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3월부터 광주

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지역에서 올해 총 1,000호의 주택 매입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동별 매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된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 8월 취업자 수 증가...고용 질은 하락

전년동월 대비 2만2,000여명 ↑ ...단기일자리 위주
지속되는 코로나19에 제조업 줄고 서비스업 늘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는 전년 대비 2만 2,000여명 증가했으나, 뿌리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통계청의 ‘2021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0.5%)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대비 광공업은 1만 5,000명으로 -13.5%, 농림어업 4,000명으로 -27.1% 등 각각 감소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 3,000명으로 8.0%, 건설업은 5,000명으로 7.5%, 전기 운수·통신·금융업은 5,000명으로 6.3% 등 각각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57만 6,000명 대비 1.3% 증가한 7,000명으로, 상용근로자는 1,000명(-0.2%)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2000명(1.8%), 6000명(17.1%) 증가했다.

근로시간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2,000명 늘어나는 등 39.6%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5만 7,000명 감소해 48만 명에 그쳤다.

이와 같은 수치는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임금근로자보다는 단기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줄어드는 등 17.9% 감소했으며,

실업률 또한 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고용률은 65.6%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전년 대비 1만 8,000명 증가한 100만 명으로 1.8%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광공업이 1만 4,000명 줄어드는 등 11.9%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8,000명 줄어 9.4%의 감소를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또한 1만 2,000명 줄어 6.5%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만 3,000명으로 10.3%,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5,000명으로 7.2%, 농림어업도 1만 2,000명으로 5.5%를 기록하는 등 각각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4,000명 늘어난 60만 6,000명으로 0.6% 증가했으며, 이 중 임시근로자는 7,000명으로 3.9%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000명 줄어드는 등 7.7% 감소했다. /오지현 기자

중흥S-클래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중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헬월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인천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 중흥S-클래스

서울 현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주 신동 중흥S-클래스

유탄건설은 15일 광주시 고용센터에서 열린 '2021 광주지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유탄제공

유탄건설, 워라벨문화 확산 앞장

광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공모전서 장려상

광주지역 기반의 종합건설사 유탄그룹이 사내 워라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유탄그룹 계열사인 유탄건설은 15일 광주시 고용센터에서 열린 '2021 광주 지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지역고용정책 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 시 소재 기업 중 일하는 방식과 근로 환경을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킨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다.

유탄건설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바꾸기 위해 출퇴근 지문·사원증 인식 시스템을 도입,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 운영 현황표를 제출하게 해 근태를 관리하고 있다. 직원들

의 퇴근 이후 올바른 문화생활을 권장하기 위해 광주·전남권 주요 전시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직원들에게 배포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부서와 현장별 주기적인 잔여 연차 일수 안내로 100% 이용을 독려하며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비와 함께 호텔 상품권을 제공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조직 문화가 틀을 잡기 시작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는 향상되고 매년 직원 수가 증가함은 물론 이직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광주시 산하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얻은 유탄건설은 사내 워라벨 분위기와 함께 올해 실적도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병래 유탄그룹회장은 “유탄그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회사를 이끄는 직원들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꾸준한 실적 향상과 성장에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복지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